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1998년에서 1999년까지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생활하였던 분이 소년원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당시 자신은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생활했던 학생이며 종교 행사 때 천주교 반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본당에 문의하여 이분의 세례 대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세례증명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본당에 가셔든 언제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록 이번 일이 사소한 일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교정사목을 하는 많은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에게는 아주 뜻 깊은 일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선포가 세상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죄짓고 들어온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시메온이 성당에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셨던 하느님의 찬미를 바치게 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29-32)

그러하여 오늘도 우리는 종교행사를 할 때마다,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주고,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자라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 그리고 봉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에 절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총을 청해 봅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1차 이사회



11월 22일(금) 명동 교구청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1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들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12월 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가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최남식 베드로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는 대림 시기를 시작했고, 늘 깨어 준비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에 나온 백인대장의 믿음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를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느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12월 20일 정민하 율리오 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봉사자들과 시니어카리타스 합창단이 함께 정민하 율리오 신부의 영육간 건강을 위한 특송을 준비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파견미사



9월 5일(목)~12월 5일(목) 매주 목요일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6명의 교육생으로 14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정민하 율리오 부위원장 신부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의 교정사목 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행되었고, 서울구치소 참관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주례로 봉헌된 파견 미사를 마지막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o.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남겨요.

만델라 온지 1년 8개월 됐는데 천주교 집회 나가면서

마음을 다 잡혀진 계기가 된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맛있는거 먹으려고 천주교 다녔는데

미사도 하고 선생님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우도 하고 제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뀐거 같습니다.

항상 응원 해주시고 수요일마다 오셔서 열로 뵈고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들께 세례도 받고 교우로서 새 사랑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가서도 성당 되도록 나가고 싶고 신부님들랑 연락도 하고 싶어요 ㅎㅎ

꼭 꼭 연락드릴테니 밤이주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함다.

from. 딸기마데



배움의 터

한원근 베드로_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교정사목에서 지난 9월부터 프락티쿰 활동을 하는 한원근 베드로 신학생입니다.

교정사목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아는 것이 없어 혼자서 여러 생각과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수용자들을 교정해야 하나?’, ‘사람이 과연 변할까?’, ‘담장 안의 사람들은 어떨까?’ 등 제 생각과 걱정은 실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정시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수용자와 주로 미사를 함께 드리고 가끔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계기로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친구들과 놀기에 바빴고, 이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신학교에서는 외출도, 인터넷도 자유롭지 않아 사회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학교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다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바라보기 급급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교정 사목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족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돈이 충분하지 않아 집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를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저에게 없는 것이 아닌,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소년수부터 사형수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그들의 종교집회 시간에 드리는 미사 안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수용자들은 미사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뒤를 돌아보고 말도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대부분이었고, 그저 미사 경본을 따라하고 성가를 부르는 것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종교집회 시간은 분명 낮이라 밝은 밝았는데 감옥 안에는 밝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시작하면 신부님께서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 경본을 찾거나, 성가를 부르며 자신의 어두움을 내뽐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볼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성사와 미사는 매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이 아닌 한 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들 중 신앙인에게는 그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고 어둠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아닌 신부님과 봉사자, 특히 예수님께 위로와 사랑, 보살핌을 받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사회에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할 곳도 없어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미사에 나와 기도하는 수용자들을 보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비, 용서, 사랑의 하느님 모습을 따르려 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따르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용자들은 죄를 짓고 자유를 빼앗긴 이들이지만, 사실 그들 중 누군가는 어릴 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거나, 자기 곁에 있어 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살아온 아픔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러한 아픔을 가진 면에서는 사회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내버려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의 많은 이들은 교정시설인 교도소, 구치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을 찡푸리고, 수용자들을 그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사회로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손가락질받으며, 버림받고,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으로 오셨고, 스스로 수난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 중 어느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뉘우치는 이들과 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며 관심이 아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 중 과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처음 교정사목에 오면서 했던 걱정과 고민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니, 제가 무언가 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담장 안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고, 담장 밖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면서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매우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울 때 입을 따뜻한 옷,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 이뿐만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저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정사목 봉사 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신 교정사목 신부님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신 직원분들, 각 교정시설에서 저를 밝게 맞이해주시고 수용자들의 부모님이자 친구가 되어주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교정사목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정사목에서의 봉사 활동이 끝나도 기도 안에서 함께 하고 제가 배운 이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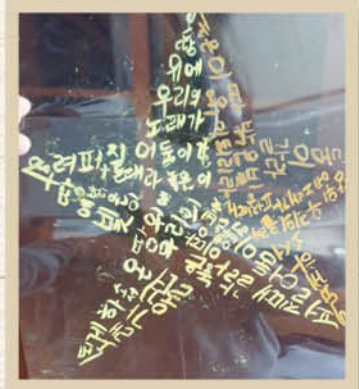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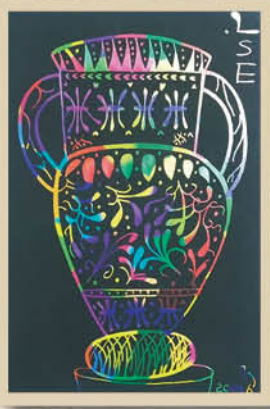
‘나보다 더 초라한 연장이 있었다면 그것을 쓰셨을 것’

윤혜진 세실리아_분류심사원 천주교 반 미술 강사

2009년 명동 평화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하고 본당 사무실에서 지방 교도소로부터 세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서함 00번지라는 낯선 주소지에서 온 편지를 열어보니 편지의 주인공은 부인을 살해하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6개월 뒤 출소하는데, 평화신문에 실린 제 전시 소식과 그림 주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출소 후에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 편지였습니다. 당시 제 그림의 주제는 ‘회심’이었습니다. 청년성서모임을 통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을 관찰하다 보면 결국 어떤 계기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저도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에 도무지 응답할 수가 없었는데, 2016년쯤 후보에 실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육 소식을 보고 늦게라도 응답할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기에 아직 성인 대상으로는 못하더라도 중등 미술 교사로서 청소년 대상 미술 수업을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천주교 반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미술 수업에 천주교의 가르침을 녹여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신부님께서 매 수업별로 이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 수업 후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하셔서 작은 마음인지라 처음엔 상처도 좀 받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동기유발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름 교직 경력이 20년이 코앞이라 지적을 듣는 것에 대해 민감했었던 모습을 반성하며 수업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 소년원 수업 전날 밤까지 늘 고군분투하며 준비하곤 합니다. 수업이 하나의 작품인 양 계속 고민하고, 몇 해 전 후보 내용까지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 신부님의 강론 원고도 찾아보며 고민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전날 저녁이나 밤이 돼야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은 하느님과 만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못 닮을 담이 없다’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하나의 미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땀속까지 파고드는 성찰의 시간이라 영혼의 파노라마처럼 제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코로나19 이후로 분류심사원까지 추가로 활동하다 보니 제게 주어진 45분의 시간으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느님께 초대할 수 있길 간절히 청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초라한 연장이 있었다면 그것을 쓰셨을 것’이라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제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기회에 봉사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길 청해봅니다. 이 길로 초대해 주신 모든 분과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봉사자분과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봉중고등학교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아이들이 직접 작업한 미술 작품입니다.

2025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1월 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월 8일(수)~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 1월 14일(화) 전체 봉사자 연수 / 노틀담 교육관
- 1월 15일(수)~17일(금)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 · 수도자 동계 연수 / 농은수련원
- 1월 15일(수)~17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여주교도소 취 · 창업교육
- 1월 18일(토)~19일(일) 당산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11/16~12/15)

2024년 11월~12월에는 김영례, 박현지, 변일수, 서순현 안나, 유혜진 크레센시아, 윤경석 스테파노, 윤명금, 이재숙 요안나, 이정현, 이중현 소화데레사, 이택성 라띠노, 허순이 올리안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민지수 엘리사벳, 한명자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